횡설수설

작년 8월21일, 富川경찰서 「성고문사건」의 장본인으로 불구속입건된 文貴童경장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을 내린 仁川지검은 이런 이유를 들었다。文씨의 폭언폭행은 첫째, 조사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것이고 둘째, 그는 10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세째,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는 것이었다。이에 결들여진 公安당국의 분석은, 피해자 權양의 섬모욕 주장이, 「혁명을 위해서는 性까지도 도구로 사용하는, 급진세력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요약되었다◆87년 1월21일,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을 수사중이던 검찰은, 담당검사들을 연사흘째 열등포교도소로 출퇴근시키며 고문경찰관들을 철야 심문했으나, 내용을 묻는 기자에게는, 「아무말도 할수없다。잠좀 자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그리고 23일에는 검찰의 수사관례를 무시하고, 피의자인 두고문경찰관을 참여시키지 않은채, 葛月洞에 있는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층 조사실에서 실황조사만을 실시, 현장검증을 생략했다。얼마전엔 이사건과 관련돼 직위해제됐던 세명의 경찰고위간부가 슬그머니 보직을 받았다◆87년 2월13일, 釜山형제복지원사건에 이어 大田聖地園사건이 터지고, 忠南도지사실에서 신민당의원들이 농성을 벌이자, 金聖基법부장관은 그들을 「의법조치」하여, 구속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도지사는 야당의원들의 실태조사와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했으며, 大田市는 園內의 집단폭행사건에 따른 「원생面談」을 하다말고, 그들의 「반발」을 핑계삼아 돌연 심사위원들을 철수시켰다。그뒤로는 아무도 조사의 명목으로는 聖地園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으며, 며칠전 釜山복지원에서는 또 살인사건이 생겼다。요근래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은 이처럼 무엇하나 속시원히 밝혀진것이 없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시 「汎洋사건」과 만났다。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사건의 축소와 극소화에만 신경을 쓰고있는 기미다。朴회장과 韓사장말고도, 이들의 비호세력이나 관계공무원이 있을법하다는게 국민들의 상식인데도, 「추가처벌은 없을것」이라고만 강변한다。「용팔이와 角木부대」도 일건만했지 구속자는 없다。이러고도 어찌 「총력니다」의 할참을 바라랴。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보고 및

권양 무조건 석방 서명운동 발대회의

일시 : 1987년 4월 10일 오전 8시

장소 기독교회관 소회의실

순 서

1. 인 사 말
2. 성고문사건 대책활동 보고
3. 변호인단 보고
4. 서명운동 제안설명
5. 기타토의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 대책위원회

-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 천주교수녀회 장상연합회 (회장 김순자수녀)
-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상근목사)
-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 (회장 청화스님)
-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의장 제정구)
-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회장 김승훈신부)
-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장성용목사)